곤도보 - 5만추 규모로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

곤도보는 일본계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에 5만추 규모의 면 방적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면사 시장에서 판매할 실을 생산하고 있는 가장 큰 방적 공장 중의 하나가 곤도방적소(近藤紡績所)이다. 곤도보는 일본 내에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구시설들은 모두 정리하고 최신예 무인 완전 자동화 시설만으로 링 정방기 24만추와 OE 정방기 22~23대, 직기 152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중국에 지난성등방직(濟南成藤紡織)에 2만추, 칭다오등화방직(青島藤華紡織)에 면방 5만추, 원형 편기 106대와 인도네시아의 곤도보텍스틴드에 10만추로, 해외에 도합 3개 공장 17만추를 가동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곤도보가 전액 출자로 호치민시 근교에 5만추 규모의 면 방적 공장을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2006년 초까지는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신회사명은 곤도텍스타일베트남으로서 30수 단사, 40수 단사의 코머사와 카드사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주로 베트남의 일본계 편성、봉제 공장이나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지 자본 공장에 공급해 줄 계획이다. 그리고 일부는 수급 조정용 여유분인 버퍼(buffer)로서 실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구미를 비롯한 섬유 제품 수입국들은 섬유 제품 생산이 중국 한 나라로만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참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의 하나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다. 인건비는 중국이 일본의 1/30이라고 하면 베트남은 일본의 1/40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① 교육 수준이 높고 손 재주가 좋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봉제도 잘 해내고 있다 ② 정치、경제、외환율 등의 사회적인 안정감이 든든하다 -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중국 리스크의 분산처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의 수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시점에서 17억달러였던 섬유 제품 수출이 2004년에는 43억달러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급증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2001년에 4,700만달러였던 것이 2004년에는 27억달러로 비약한 요인이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봉제품의 소재 생산이 극히 빈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하여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섬유제품제조업자연합회(ITMF)에 의하면 베트남의 면 방적 설비 추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89만추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지 자본의 방적 회사 외에 대만 자본이나 한국 자본의 방적 회사가 있으며, 양질의 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곤도보는 베트남의 방적 공장도 중국의 방적 공장처럼 가동하고 있어 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실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

베트남도 2006년까지 WTO에 가맹하게 되면, EU와 캐나다는 2005년 초부터 쿼터를 폐지하였으므로, 미국만이 베트남에 대한 쿼터를 유지하게 된다. 앞으로 베트남은 섬유 제품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곤도보는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빈약한 소재 생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